

# 尹-바이든 부부 백악관 관저 야경 감상 친교...선물 교환도

### 尹 “반려견 반려묘 등 많은 공통점...방한하면 관저 초청” 美 소형탁자·꽃병·목걸이 韓 달항아리·은주전자 등 답례 한미 정상 부부, 친교행사 후 한국전참전비 함께 참배 나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둘째날인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부부가 친교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백악관 관저를 방문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참배를 함께하며 약 1시간30분가량 친교 시간을 가졌다고 이도은 대변인이 순방기자단 프레스 센터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백악관 관저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고, 내부 공간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블루룸에서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다. 이어 워싱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야경을 감상했다.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적·

문화적 교류 문제와 국제철학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국민으로 모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해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며 “나중에 방한하면 관저에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 정상 부부는 선물 교환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소형 탁자, 꽃병, 목걸이를 선물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윤 대통령에게 프로선수가 썼던 야구배트, 글로브,

공인구를 선물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의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가 화제됐던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의원 야구팀에서 활동하면서 투수 출신의 공화당 의원 공을 쳐서 368피트 날렸던 경험을 말하며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가 무슨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타구 하나로 할아버지를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달항아리, 은주전자, 족도리를 답례로 전달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함께 찾아 한국전참전비에 헌화했다. 이어 루터 스토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 유족을 만나 환담했다. 스토리는 한국전에서 실종돼 유해가 발견되지 않다가 이번 달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 의해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의 송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국 정상 부부가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청년의 송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한국의 성장은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동상

등을 살펴보고 함께 걸었고,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한 후 묵념했다. 또 추모의벽 앞에서 스토리 상병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추모의벽에는 한국전 미군 전사자 3만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최이슬기자

## 이재명 “외교 현실 안타까워”...민간 외교 역할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외교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전개된다”며 당 내 민간 외교 기구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26일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외교가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한인민주회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며 “당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 한인민주회의에 “외교 회복 노력”

한다”고 했다.

또 재외동포기본법을 상기하고 “여야 가릴 것 없는 대통령 공동 공약이었는데, 아직 뚜렷한 진전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성 수석부의장은 “재외동포는 민주당이 가진 큰 힘”이라며 “타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지원을 보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 조직을 쇄신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 승리를 위해 조직 재정비, 외연 확장을 하면서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장단이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가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민주, 민형배·김홍걸 복당 결정

### 민주, 최고위서 복당 의결...“당의 요구로 심사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곰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혹이 제기돼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 중앙당 자격심사위에서 두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곰수완벽” 법안 처리 당시 자진탈당한 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 논의를 통해 복당을 의결했다. 2020년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 당한 김 의원의 복당은 추후 당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당의 요구로 심사해서 복당을 허용한 결론 알고 있다”며 “충분히 시간 지나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복당)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결론이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 의원의 복당 사실을 알렸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